

나주,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한다

잔류농약 검사 연 1천건 목표
살충제 등 463가지 수치 확인
소비자 신뢰·농가 소득 향상 기대



나주시는 최근 나주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잔류 농약 검사 시료를 채취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제도·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로컬푸드직매장 및 협력매장, 공공급식에 출하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올해 1,000건 이상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는 농가 사전 의뢰를 통한 생산단계와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나주시농산물안전성분석실 또는 지정 민간분석기관에서 수행한다.

살충제, 제초제 등 총 46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한다.

나주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직매장에서 출하되는 유통단계 농산물 시료를 소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관련 기관에 통보돼 출하 연기 및 폐기 조치와 직매장 출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잔류농약 검사와 더불어 지난해 8월 최초로 도입한 '나주로컬푸드인증제'는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인증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협(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식품은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비율이 50% 이상이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기준에 벗어나면 1회 인증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때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인증 농가에서는 유통 전 사전검사에 철저를 기하며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안전성을 공인받은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상생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출하 농가의 윤리식감화,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성, 일류농업 육성 분주 김한중 군수·의원 등 20여명 청양·완주·김제 선진지 견학



김한중 장성군수 등 20여명은 최근 청양군과 완주군, 김제시 농업 선진지를 견학했다. /장성군 제공

김한중 장성군수가 일류농업 육성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한중 군수와 서춘경 장성군의회 의원,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군 관계자 등 20여 명은 최근 청양군, 완주군, 김제시 선진지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과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2층 농가 레스토랑 증축, 청년 농업인 육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 준비를 위해 진행됐다. 장성군은 현재 지역 농산물의 학교급식, 복지급식 유통을 담당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다.

푸드플랜의 핵심 시설로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장성로컬푸드직매장 2층에는 농가 레스토랑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

첫 번째 견학 장소로 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을 찾은 김한중 군수와 관계자들은 김돈공 청양군수를 만나 푸드플랜 추진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음 견학 장소는 완주군 소설곶조형신촌파크였다.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사례 공유를 위해 삼락로컬마켓, 농가 레스토랑도 둘러

봤다.

마지막으로 김제시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답사했다. 스마트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등이 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장성군 역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현장 방문이 큰 도움이 됐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 농촌공간정비 중간 용역 보고회

대규모 돈사시설 철거 등 논의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중간 용역보고회 및 TF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오염되고 난개발 돼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다움을 복원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용산면 운주리구를 대상으로 1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7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김성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및 업무 관련 팀장, 용역사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기관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기본계획에는 대규모 돈사시설 철거, 마을 내 주민 개별 축사시설 철거 후 공동축사 마련을 통한 이전, 청년귀농 체험마을센터 조성, 마을 환경정비, 시설물 운영관리 및 운영조직법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흥군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약취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던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물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다수의 주민이 불편해하는 유해시설을 철거한 다음 청년귀농인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전국적인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해당 지구에 대해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시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승인을 얻은 다음 2025년부터 착공해 이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영광,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방안 대전환

안전교육 이수 등 조례 개정

영광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운영방안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인 불편사례 해소·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집중예방 등을 집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임대대상 농업인 확대·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임대절차·농기계교육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출고시간 오후 4시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상향(당초 1만원→5만

원) 등으로 농업인 편의증진 방안을 강구했다.

또 임대농업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보험가입 명시 ▲농기계안전교육 이수 사항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했다.

반면 임대농기계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성실하게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용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광=곽승순 기자

영암, 경기침체 해소 지방재정 신속 집행

소비·투자 분야 집중점검

영암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의 경제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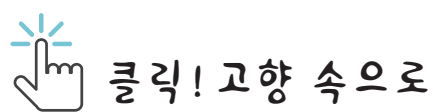
영암군은 7일 "소상공인 부군수 주제로 10개 부서의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소비·투자

부문 사업의 추진계획과 집행을 제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나섰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됨에 따라 군은 공공재정의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해 지역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인 2,386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올해 영암군 전체 예산현액 8,116억 원 중 신속집행 대상액 3,938억 원의 60.6%에 해당한다. /영암=최복섭 기자



영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논의

영암군은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원협의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이로 이번 회의는 지역연계 사업 발굴과 다양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자기주도 성취

감 향상 프로젝트와 현장체험 중심의 테마별 주말 전문체험 및 4차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직업 세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체험활동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함평 풍년당, 소외계층 아동에 유음료 기탁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기념해 함평군에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함평군은 7일 "지역 업체인 풍년당(대표 원상권)이 아동복지시설에 400만원 상당의 유음료 2,67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풍년당은 2016년부터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매년 지역 축제를 맞

아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위해 유음료 등 유제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원상권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나눔을 실천해 주신 원상권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화순, 고인돌축제 청소년 문화해설 체험

화순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7일 "청소년 40명이 참여해 화순고인돌축제 청소년문화해설사 도전 프로젝트와 화순팜 홍보를 위한 토요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요체험은 화순고인돌축제에 참여해 봄꽃탐방길을 즐기며 청동기시대 문화를 흥미롭게 알아가는 내 고장 돌문화 알기로 청소년문화해설

사에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공예클래스와 연계해 화순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화순팜' 알리기 캠페인에 직접 제작한 홍보 포스터를 들고 지역사찰 실천에 동참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